



2026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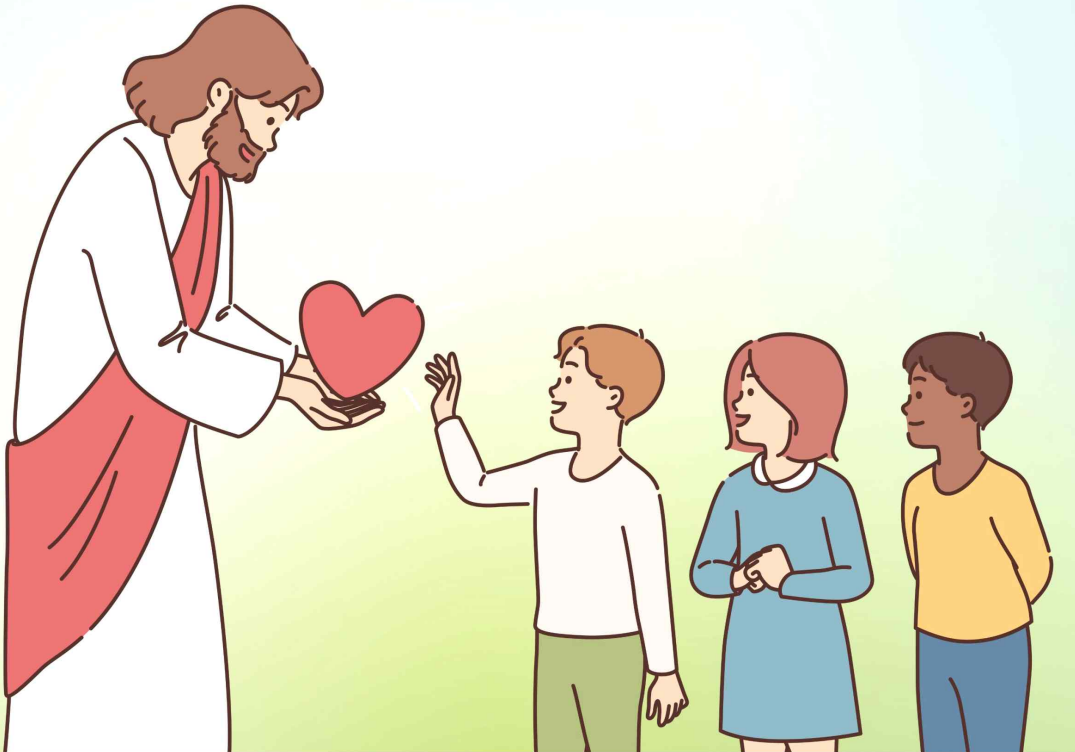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여배 드립니다.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여러분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나요? 좋은 친구는 함께 웃고 놀 때만 친구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만약 친구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도와주면 나도 혼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 주는 두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당시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 질투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요나단에게 찾아가 물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아버지인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요나단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다윗의 말을 듣고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살펴보고, 위험하면 다윗에게 알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화살을 이용해 비밀 신호를 보내기로 한 것이죠. 사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친구를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친구를 사귄다 할 때 나에게 잘해 주는 친구만 찾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요나단처럼 친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어요.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친구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래요!”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